

1/31(월) 스가랴 묵상 3

스가랴 1:17-21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곱가지 환상을 선포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스가랴서와 다니엘서의 유사점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스가랴서는 미래에 대한 내용과 분량 면에서 다니엘서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선지서 사이에 예언의 차이점은 다니엘서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예언적 계획을 선포하고 있다면 스가랴서는 이방인 시대 동안의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스가랴서의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상

스가랴가 본 두 번째 환상은 네 개의 뿔과 대장장이 네 명의 환상입니다. 먼저, '네 개의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괴롭힌 열방'을 말합니다(18-19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흠뜨린 뿔이니라."). 이들에 대하여 일부 학자들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등으로 보기도 하지만 본문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그 이상을 상상하는 것은 적절한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과 열방들의 숫자는 위의 네 열방들 말고도 수없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데 있어 특히 비유나 예언의 말씀과 같이 난해한 본문 일수록 신중하게 성경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해석은 '성경을 성경으로 풀다(Scripture is interpreted by Scripture)'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해석자의 영감이나 상상 그리고 경험에 의존해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알레고리적 해석'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이란? 성경에서 본문의 문자적,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인 올바른 해석 방법 외에도 더 심오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으로 특히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해석 방법을 말합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의 시조로 초대 교회의 오리게네스는 성경의 문자 배후에는 2개 이상의 제 2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스가랴는 네 명의 대장장이와 그들의 행위를 보게 됩니다(20-21절, "그 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흠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흠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뉩니다. 첫째로, 네 명의 대장장이들 역시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제국을 상징한다. 그 이유는 다른 뿔들을 제압하는 역사상 큰 존재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열방들을 징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해석합니다. 이 중에서 후자의 견해가 더 지지를 받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이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한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은 당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유다 백성들에게 큰 용기와 격려를 주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한 대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고 5개월 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16년간의 지속된 훼방으로 인해 성전 재건이 여러 번 멈추게 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방해꾼들의 공격이 또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칠십 년이 되는 해에.. 성전이 건축되리라’는 확신을 주셨고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는 그들을 지금까지 훼방한 원수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사 40:30-31,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만약 유다 백성들이 주변 환경과 상황에 겁을 먹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성전 재건을 완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시고 이 역사를 결국 그들의 손으로 끝마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가지 주변 환경과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또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담대히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전쟁의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보호하시고 러시아가 무모한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붙잡아 주소서. 평화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 땅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국민들과 선교사님들,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 각 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재정위원회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 4.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말레이시아 홍리브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